



'마음 야구' 사인 받으세요

두산에어스 기경민 감독
김경민 감독



지난 10월 13일, 두산 베어스에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경민 감독(45). 신임감독으로 발표되자 곧장 붕은 사로 향했다. 30여 년간 야구를 하면서 가슴에 품어왔던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 감독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발원을 위해서다.

"감독은 야구를 시작하던 11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신임감독으로 결정되던 날, 붕은사로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6년 동안 두산에서 코치를 맡아왔던 김 감독이 부임하게 되자 주변에서는 그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수근, 장원진 선수를 비롯해 두산의 기동력이 돼왔던 선수들이 이적하는 등 현재 팀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감독의 얼굴에서는 걱정 대신 오히려 확고한 자신감이 비춰졌다.

"시련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역시도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위협받는 두 차례의 시련을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다.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경기 중 부상을 당해 뇌진탕으로 고생했다. 그 후유증은 대학야구 시절에도 계속될 만큼 극심했고, 겨우 완치가 될 즈음 이번에는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야구선수로서, 제 인생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이유로 야구선수 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수천 번 다짐했지요. 매일 '오늘이 그라운드에서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경기에 출전했고, 화두 풀이에 목숨을 걸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프로 데뷔 3년차가 되던 해 최고조에 달했다. 신체적 고통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아픔을 안겨줬다. '이러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시기에 김 감독은 더욱 불법에 귀의하게 됐고, 불교는 그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 주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비형 포수'로 명성을 날리며 10년 동안의 프로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힘든 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찰을 찾기 시작한 김 감독은 요즘도 틈틈이 잠실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붕은사를 찾는다. 그는 붕은사를 찾을 때마다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그만의 '마음 수행'을 한다.

"코치 시절부터 내 자신의 자만이 선수들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치더군요. 신기하게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용기백배하면 그날은 경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저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감독은 경기 바로 직전에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며, 정견과 해안을 기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런 김 감독의 철학은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달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자율훈련'에 들어간 뒤에도 40여명의 선수들이 훈련에 참석할 만큼 선수들의 열정 또한 뜨겁다.

김 감독의 2004년 시즌 목표는 '4강 진출'과 '보다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겨울에는 조용한 사찰을 찾아 내년 시즌을 위한 마음준비와 팀의 재정비를 계획할 것이라는 김경민 감독. '마음으로 하는 야구',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야구'를 강조하는 그의 내년 무대를 기대해 본다.

글=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부임후 초심 잃지 않으려 사찰 방문
프로시절 신체적 고통 불법으로 극복
자신과의 대화로 '편한마음' 유지
경기직전 행동 반성 정견,해안 기원



초
대
합
니
다

BBS 대구불교방송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 리셉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경북 200만 불자들과 애청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로 그동안 시험방송을 해 온 안동중계소와 포항중계소가 드디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동북부지방에 생활의 길잡이 지혜의 등불이 될 대구불교방송 안동·포항중계소 개국과 북부·동부지사 개소를 축하하는 리셉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 포항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

- 일시 : 2003년 12월 12일(금) 11:00 ~ 12:30
- 장소 : 포항 시그너스호텔

- 안동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

- 일시 : 2003년 12월 18일(목) 18:00 ~ 19:30
- 장소 : 안동 신라뷔페웨딩홀



사진설명 • 대구불교방송 개국 7주년 리셉션 축하 떡 절단 장면 (03.11.6 대구인터뷰고호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불교방송 재단 이사장 도우스님, 문영위원장 법타스님, 사장 성타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명성스님, 김규철 불교방송 중앙국사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이의근 경북도지사, 장영관 대구광역시, 도승회 경북교육감, 김무생 위덕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최상영 동국대학교 부총장, 설성두 국경원 대구지부장, 이병진 대구지방경찰청장, 금동준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원형 국회의원, 강신성일 국회의원, 이강철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오갑환 KBS 대구총국장, 이길영 TBC 대구방송 사장, 전병철 MBC 경영관리국장, 대구평화방송 사장 이용호 신부님, 정영우 교통방송 대구본부장, 조용철 연합뉴스지사장, 김춘훈 KOBACO 대구지사장(무순)